

인민의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은혜로운 손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았으며 천만민민의 가슴가슴은 원수님의 명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 하루빨리 인민의 리상을 꽃피울 열의에 넘쳐났다.

집세위원을 높이 모신 비답에 없 는 민족적 긍지에 넘쳐 기적과 위훈 을 수놓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참으로 하늘을 찌를듯 높다. 천만의 발걸음이 평화를 배태해주 며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조선이 커다란 전적으로 메아리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불고 혁명적인 총동맹,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피뎠는 가슴에 단장약한 천만민민이 절충의 신심드높이 날에날마다 창조 의의의 동맹으로 시대를 격동시켜 나가고 있다.

인민의 아름다움 끝이 어떻게 현실로 꽃피어가고있는가를 세계에 과시하는 장엄한 경제건설대진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은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향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

다른 모든 기적과 마산가지로 이 위대한 현실을 추종하는 신약 같은 힘은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만민 시련을 헤쳐며 투쟁하여온 나날 들은 우리 인민이 이 위대한 전력을 가슴번치며 절감한 잊지 못할 날과 달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장 군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쫓아놓으신 귀중한 시간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향상과 경제장군건설에 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모든 사색과 열정 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주제 101 (2012)년 4 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인민 생활향상과 경제장군건설에서 절 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천시기 인민생활향상을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장군건설의 요체로 과학적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러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장 군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쫓아놓으신 귀중한 시간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두어 마흔여섯인 귀중한 필한을 온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원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 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한다.

하여서라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인민생활향상문제를 천만가지 국사중에서도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 었다.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분과 단위들을 추켜 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회의에서 경제장군건설의 주력방 향인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율을 높이고 농사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과학적 으로 지어 땅이 제시한 알곡생 산물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 향상대진군의 포섭을 크게 올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 업공정들을 만반으로 돌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절충은 인민소비품들 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 었다.

몇년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새 거진 이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 게 울려주고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여러 가지 친분을 대향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종업원들의 수고도 헤아 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서 울리는 만부하의 총음은 심심드높이 나아가 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발자국소리 이며 사회주의의 전진과 승리의 동 울이라고, 인민들에게 생활상대역이 더 많이 제공되게 해야 인민들의 행 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 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 상을 위한 주요전투이며 사회주의수 조건의 제1선참호이라고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경제부분이 차지하는 지위의 역할을 명백히 밝혀 주시는 참으로 광명적인 가르치심이 었다.

어찌 이뿐이었는가, 조국의 바다우에 황금색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황금색의 혁사우에 떠오른 이제 로운 봉봉에 대한 일화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집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강령군검에서 꽃피 냈것이다.

수천의 물고기를 며칠 사이에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이하는 잔비를 맞으면서 어느 한 수상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미리내,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말과 말씀은 또 얼마나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가.

모든 수상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잡아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하 려는 마음, 자기들이 지켜선 뜻이 바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일선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투쟁한다면 그 어디서나 물고기포획을 미련할수 없다.

조국밖 그 어디나 인민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원수님의 이런 헌신 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울리는 일미선 평양방직공 장, 우리 나라 김치공장의 본보기, 후르르 전진된 튜링김치공장, 푸르르 원수님 인민들을 위한 보람이 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 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뻐서 넘쳐 말씀하신 로동당시대의 영광...

인민을 하느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명님들의 뜻은 정히 받드시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대중의 정신력이 발달되면 못내일 일이 없다는것은 우리 혁명실천투쟁중에서 확증된 진리 이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경제건설대진 군의 복소리처럼 힘차게 울려가는 오늘 의 막대한 현실을 대항수속 뒤세겨지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원력은 천만민민 의 정신력을 발휘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제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 양기초적공공을 찾으시였을 때에 는 일이다.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무 려진 공장의 여러곳을 만족하게 돌아 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휴식 미의 시원한 나무그늘아래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육동장 건설을 대담하고 용이 크게 벌려 줄것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은 정말 기본 일만 생기는 날 이라고, 총련에 어느 한 부대를 더 보내서 돌이아왔는데 여기에서 고나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못내 만족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신데 이어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곧바로 이곳에 오셨으니까!...)

같은 감정에 젖어있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이 육동장을 건 국의 본보기,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염소도원건설장 으로 가보시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달구지나 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맑고 가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동장을 찾으시 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소문없이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를 비웃음으로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찌 할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손은 따뜻한 같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가 힘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다. 육동장이 건설되면서 길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아열한 비를 끼고 우물수풀하게 나진 산길에는 크고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었고 그즈음 비까지 많이 내리다보니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런 험한 길을 헤쳐오셨으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더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권좌하고, 힘줄에도 오늘 여기에

